



DREAM story

드림 스토리

청소년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다!





2018 드림스토리

청소년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다!

발행

2018년 12월 21일

펴낸곳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02-2051-8600

www.dreamcenter.or.kr

편집 디자인 제작

플랫(PLAT)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 책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폰트중 KCC은영체는 타이포랩(www.typolab.co.kr)에서 제공받았습니다.

01



지도자 & 감사 수기

바리스타인턴십	7
쿠키인턴십	9
놀이터인턴십	11
지역연계인턴십	12

02



바리스타인턴십수로 청소년 수기

바리스타인턴십 15기	14
바리스타인턴십 16기	20
바리스타인턴십 17기	22
바리스타인턴십 활동사진	28

03



쿠키인턴십 수로 청소년 수기

쿠키인턴십 7기	31
쿠키인턴십 8기	33
쿠키인턴십 9기	34
쿠키인턴십 8,9기	39
쿠키인턴십 활동사진	40

04



놀이터인턴십 수로 청소년 수기

놀이터인턴십	43
놀이터인턴십 활동사진	48

05



지역연계인턴십 수로 청소년 수기

지역연계인턴십	51
지역연계인턴십 활동사진	60

01

지도자 & 감사 수기

바리스타인턴십

쿠키인턴십

놀이터인턴십

지역연계인턴십



바리스타인턴십에서 찾은 소중한 의미

바리스타인턴십
강정민



안녕하세요. 바리스타인턴십 담당자 활동자립팀 강정민입니다. 이번 2018년은 바리스타인턴십 15, 16, 17기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맺게 되어 기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늘 제 삶의 원동력이었고 교사라는 사명으로 교단에 섰을 때 살아있음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다 청소년 지도사로 진로를 바꾸게 된 계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했던 청소년의 말이, 그 모습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 내내 마음 한 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제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맡게 된 바리스타인턴십은 다시금 교단에 서 있었던 그 때의 생동감을 찾게 해준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리스타인턴십은 대부분 소속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리스타인턴십 소속으로 바리스타 관련 기술교육과 기본소양 교육(경제, 비즈니스 매너, 노동인권, 취업교육 등), 일 경험(카페 실습, 카페 아르바이트 연계)을 제공받는 유급 인턴십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3개의 기수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훌륭히 수료하여 현재 드림센터 4층 드림카페의 직원으로, 외부 스타벅스 지점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십을 통해 1년여간 하루하루 많이 배우고, 많이 반성하고, 많이 기쁘고 벅찼습니다. 매 기수의 처음 오리엔테이션으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긴장하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수료식을 통해 함께 그동안 돌아보면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물론 인턴십 담당자로서 처음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다가가기 조심스러웠고,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며칠씩 밤새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단체생활을 힘들어하던 청소년이 함께 인턴십을 듣는 기수끼리 모여 드림놀이터에서 함께 노는 모습을 봤을 때, 커피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꿈을 가졌다고 해맑게 웃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던 청소년이 수료식에서 멋지게 소감을 발표해주었을 때, 살짝 다가와 자신이 만든 커피를 먹어보라며 건네주며 상기된 표정으로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인턴십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 편지를 선물하며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 감사인사를 전해줬을 때, 어디서나 늘 지각했는데 인턴십은 잘 오게 되었다고 말해줬을 때, 학생이 너무 행복해한다는 한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활동자립팀 사무실에 들러 출석부에 사인을 하고 바리스타실로 향하는 걸음이 점점 익숙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인턴십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지도사가 자신이 담당한 프로그램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항상 인턴십을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청소년들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십 참여 청소년들에게 짧은 편지를 쓰고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15기, 16기 17기 각 기수를 훌륭히 마쳤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명 한 명 잊게 본 것처럼 생생하네. 여전히 함께 연락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늘 이야기했지만 항상 고마웠어. 늘 사진으로 인턴십 활동의 모든 모습들을 담았었는데 그 예쁜 모습들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바리스타 인턴십이 너희가 살아가는 데, 사회에 나가는 데 조금만 힘이라도 되었다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행복해.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꽃길만 걸어 나갈 너희들을 응원하고 너희의 뒤에 서서 항상 너희 편이 되어줄게. 안녕!

밝고 선명한 별처럼

바리스타인턴십 강사
신정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 해를 뒤돌아 본다.

올해도 많은 인턴십 교육생들을 만났다. 11월까지, 삼 개월씩 세 번의 바리스타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났다.

첫 시간, 바리스타란 직업에 호기심을 갖던 반짝이던 눈동자가 떠오른다. 지금은 바리스타가 된 친구도 있고,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새로운 직업을 찾아 체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모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리스타란 직업은 음료제조와 기구, 기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못지않은 고객 응대가 중요하다. 커피음료를 예로 들면, 맛과 향이 뛰어난 좋은 커피음료는 80%가 생두로 결정된다. 커피 생두는 품종에 따라서 그리고 각 나라의 토양과 가공방식 등에 의해 특성과 품질이 달라진다. 어떤 음식이든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가 중요하단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커피를 볶는 법이나 추출방법도 중요하지만 기본 재료가 더욱 그러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그 사람의 뛰어난 지식과 기술보다 손님을 대하는 정성된 마음이 바리스타가 가질 근본 요소라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좋은 인간관계가 바리스타에게는 더 필요하다.

인턴십 교육과정 안에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무렵, 창작음료를 만드는데 교육생 모두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는 수업이다. 보통 커피에 대한 지식이나 음료를 만드는 제조방법을 배우고 나면 창작음료에 관심이 많아진다. 새로운 음료를 만드는 것은 재미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에 속한다. 그러나 새로운 음료 개발을 기존의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거나 터무니없게 만든다면 카페와 같은 현장에서는 손님들에게 선택 받기 어렵다. 나만의 만족은 아닌 것이다. 고객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소통하는 직업이다. 거기에 밝은 미소도 필수이다.

밤하늘엔 무수한 별이 떠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별들과 큰 별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비춘다. 바리스타 인턴십에 참여했던 교육생들도 자신이 소망하는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자신에 어울리는 위치를 찾을 것이다. 모두가 사회에 나가 자기 자리에서 밝고 선명한 별이 되길 바란다.

함께 성장하는 쿠키인턴십

쿠키인턴십
허선영



안녕하세요. 2018년도 쿠키인턴십 담당자 허선영입니다. 올해는 쿠키인턴십을 맡게 되어 새로운 인턴십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저도 제과 분야를 배운다는 기대도 하고 관련 전문 지식이 많지는 않아 약간의 걱정도 하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참여하는 친구들이 알차게 배워가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담당자로서 고민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하며 내용을 구성해나갔습니다. 또한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나가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첫 인턴십인 7기는 진행 초반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 아쉽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학교밖청소년 이 주를 이루어 소수정예 반으로 개별 진행하며 친절하신 강사선생님과 함께 기술을 꼼꼼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쿠키 기술교육에 참가자 입장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술을 배우고 청소년 입장에서 어떤지 파악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그 덕에 과정도 더 자세히 익히고 청소년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힘든지 파악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7기에서 청소년들이 제작한 제품들의 결과가 좋아 실습시간부터 잘 나온 쿠키들을 포장하여 드림카페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키 종류가 다양화되고 아이들의 솜씨가 좋아 카페를 이용하는 선생님들과 손님들께서 쿠키를 구매하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쿠키가 판매되는 걸 보고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 담당자로서 뿌듯하고 청소년들도 함께 큰 보람과 쿠키 제작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8기, 9기로 갈수록 참여하는 청소년도 늘어갔고, 기수별로 면접을 진행할 때 다양한 청소년들이 각자의 목표와 흥미, 기대를 가지고 이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든 아니든, 나이가 많은 적든, 흥미가 많은 적든, 제과라는 관심을 지닌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계량도 잘못하고 쿠키가 타버리는 실수를 거쳐 점점 계량도 정확해지고 제품도 완성도가 높아지며, 특히 실습과정을 통해 서로 친해지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도 보여 제 마음도 따뜻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쿠키를 만드는 활동이 아닌 인턴십 과정으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쿠키를 제작하고, 자신의 제품이 판매까지 된다는 것에 청소년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한걸음씩 성장해갔고 그 모습들을 보며 지도사로서 저도 한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었던 쿠키인턴십 과정을 참여 청소년들과 차곡차곡 채워나가며 함께 성장했던 한 해가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고 취미 생활이 생기거나,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함께 구성하며 진행해주시고 언제든지 기꺼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영옥 선생님, 이가영 선생님, 기본소양교육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여했던 7, 8, 9기 청소년들과 특히 7기 수료 청소년 중 김연서, 김세윤, 8기 김지훈은 아르바이트까지 연계하여 연말까지 드림카페의 쿠키를 책임지고 수고해주어 정말 칭찬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쿠키인턴십 7, 8, 9기 함께했던 우리 친구들 모두들 정말 고맙고, 메리 2018♥

쿠키인턴십 수업을 마치고



쿠키인턴십 쿠키기술교육 강사
이가영



지난 3월에 처음 아이들과 '쿠키인턴십'을 시작했다. 보통 진로 체험이나 취미와 같은 이유들로 수업을 진행해왔는데 수업을 배운 학생들이 직접 카페에서 판매할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더 꼼꼼히 가르치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쿠키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인턴십에 참여를 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일회성 수업이 아닌 총 12회 동안 진행되는 수업이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기억이 남는 일들도 많고, 수업을 들은 아이들 또한 계량을 잘못하는 것과 같은 실수들을 빈번하게 했던 초반과는 다르게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알아서 잘 할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었다.

총 12회에 걸친 '쿠키인턴십'에서 자질구레한 실수를 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점점 회차가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인턴십 활동을 하는 동안 열심히 참여하던 아이들에게 무척 고마웠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기면 도움부터 청하던 아이들이 마지막 회차에서는,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다.

아이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인턴십에 임한 것 같고, 이번 인턴십이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사회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친구들 모여랏!



안녕하세요. 놀이터 담당 활동자립팀 채종현입니다. 제가 놀이터 담당을 맡은 지 이제 1달이 되었네요. 올해는 담당선생님이 많이 변동이 되어 인턴십 친구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활동해준 우리 놀이터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방문했을 때 청소년들이 가장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드림놀이터' 라고 생각합니다. 놀거리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드림놀이터는 잠시나마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놀이터 인턴십 친구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했던 것이 인턴십 친구들이 미리 이곳에서 사회경험을 쌓으며 경험해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근무시간 지키기, 주어진 역할에 책임 다하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제공하기 등을 놀이터인턴십 하면서 배울 수 있고 이곳에서 천천히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놀이터인턴십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고 때로는 기특하기도 해요.

그런데 놀이터인턴십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느껴지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를 더 믿었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아직 경험하지 않는 것에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다들 시도해보고 도전하죠..! 그 도전할 수 있는 마음에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우리 놀이터인턴십 친구들!!

지금 그대들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자신만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볼까요?

Let's go~!

안전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지역의 플랫폼이 필요

지역연계인턴십
천지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대부분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여러 상황들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얻는 일이란 대부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만나 여러 번의 거절과 실패감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뛰며,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 환경에서 다치거나 어려운 일들을 접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은 추세입니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쫓겨 꿈과 진로설계에 대한 여유조차 없는 청소년들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역연계 인턴십은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2주간의 노동인권교육, 경제교육, 서비스마인드교육, 범죄교육,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방법, 요리실습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8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직활동을 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이곳으로 와서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교육들을 받으며, 조금 더 안전한 곳들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에 안심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마주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만난 많은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저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청소년들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많은 지지와 안정감을 얻는 모습과 저 또한 그들에게 함께하며 얻는 에너지와 위로는 정말 삶에 있어 작지 않은 부분임을 실감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이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지역의 플랫폼이 하루빨리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하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018년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값진 경험과 함께하는 기쁨의 선물을 안겨준 청소년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02

바리스라인턴십 수료 청소년 수기

15기

16기

17기



꿈을 키우는 밑거름, 인턴십



저는 학교를 쉬게 된 이후, 평소에 관심 있었던 커피 분야에서 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카페 알바를 찾던 중, 바리스타인턴십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신청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명칭과 사용법을 배운 후, 핸드드립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카푸치노와 라떼의 차이,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의 레시피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팔고 있는 에이드, 스무디 등의 커피 외 음료들을 배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두 달의 인턴 교육을 전부 마치고 30시간의 센터 내 카페 실습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저는 첫 달째에 먼저 카페로 내려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의 프로그램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30시간의 실습시간도 빠르게 마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커피 관련 교육 외에도 노동인권 교육, 직업 교육 등 다른 취업 관련 교육들 그리고 커피 박람회와 같은 외부활동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그리고 라떼아트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이 인턴십 교육이 앞으로 저의 진로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알찬 두 달이었다고 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소 꿈꿔왔던 아르바이트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5기 수료

마동재



알바몬에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가 지역 연계집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번 지원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아쉬워하던 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바리스타인턴십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더 있어서 곧바로 지원했습니다. 마침 수능을 마친 학생이라서 면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경험해본 덕분에 가뿐히 합격했습니다.

바리스타인턴십 수업을 시작하면서 든 생각이, 예전에 중학교 때 바리스타 수업을 받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바리스타대회에 나갈 때 배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수업으로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카페에서 파는 음료 제조방법과 카페에서 일하기 위한 조건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하루하루 제 일상에 재미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또한 15기 동료들과 친해져 가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서로 일상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의 사소한 계획까지도 함께 나누며 상대방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바리스타 수업 중, 친구들보다 먼저 실습을 하기로 했을 때 평소 카페 아르바이트를 꿈꾸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못 배운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 바쁜 와중에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카페 규칙과 제조방법, 포스기 다루기 등등, 하나씩 가르쳐주었습니다.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적응해가며 제 삶도 재미있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센터 내 직원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응원해주셔서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아직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선배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다른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양한 커피맛을
알게 되었어요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5기 수료
신은상



안녕하세요. 바리스타인턴십 15기를 수료한 신은상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바리스타인턴십 교육과정을 거치고 완벽하진 않지만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면서 성격과 행동이 꽤나 부지런해져서 제 생활패턴을 바꾸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스타(커피 제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재미있었으며 함께 수강했던 다른 분들과도 제법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바리스타인턴십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불우한 부모를 둔 저소득층에 속한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적 우연한 계기로 캐러멜 마끼아또를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캐러멜 시럽의 진한 풍미를 느끼고 나서 커피라는 것이 반드시 꼭 쓰기만 한 것이 아니고 향기로우면서 맛있다고 느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향기로운 맛이 나는 에스프레소,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휘핑크림을 올린 콘판나와 모카커피, 초콜릿 소스의 단맛이 일품인 초코라떼, 녹차가루의 은은한 향기가 나는 녹차라떼와 한약 맛이 나는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커피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제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유용한 가정 요리 수업이라든지 응급처치 수업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수업과 교육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점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들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끌어주신 강정민 선생님의 철저한 준비와 남다른 고생이었습니다. 그 분 때문에 무사히 바리스타인턴십 15기 과정을 끝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드림센터의 인턴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바리스타 교육이 더욱 많이 개설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턴십에서 배운 경험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57기 수료

옥의진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프로젝트 중 비교적 길었던 프로젝트가 이 바리스타인턴십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평소에 커피와 차를 좋아하고, 실습비까지 나온다 하여 신청을 한 인턴십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다.

커피 종류도 제대로 몰랐던 데다 아주 조금의 차이로 맛이 바뀌는 것, 고운 스팀우유를 내리고 맛의 비율을 조절하는 건 헤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또 취업교육이라든지 서비스교육, 요리교육 등은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 같이 굉장히 오만한 말투의 강사 분과 수업 중간 중간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일부 학생으로 인해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커피 실습을 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실제 센터 내의 카페에서 실습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손님 응대나 설거지, 기물 청소 등은 전혀 어려울 게 없었지만 음료 제조가 늘 문제였다. 머그컵이 아닌 종이컵에 커피 추출액과 스팀우유의 양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헷갈렸고, 메뉴 종류가 많아 레시피를 외우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다. 손님이 많을 때는 기존의 직원들이 바빠지는 데, 그럴 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옆에서 설거지만 하거나 아예 음료 제조하는 바(Bar)로 가지 않기도 했다.

손님이 없을 때도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실습을 하러 온 입장에서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손님이 없고 청소도 다 끝마친 상태에서는 할 일이 없어 창고에 앉아있었는데, 모두가 다 앉아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달까. 어쨌든 실습 중 만든 음료, 특히 커피류 절반은 망한 상태로 손님께 낸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뿐이다.

바리스타인턴십을 마치고 그 과정과 나 자신을 훑어보았을 때, 달라진 건 크게 보이지 않는다. 변화가 있다면 인턴십 과정 중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땀, 작지만 카페라는 곳에서 일을 해보았다는 것 정도일까. 그러나 이런 기술들을 외부에서 배울 때 들 비용들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저 인턴십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할 뿐이다.

해보지 않은 일들에 도전하며 나를 찾다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5기 수료

이지우



작년 12월 학교를 수료했다. 바로 대학준비를 하라는 아빠의 등쌀에 올해는 나 하고 싶은 것, 공부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대학에 가겠노라, 당당히 선언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앞서 말한 것도 중요했지만, 이번 일 년 동안 보다 집중하고 싶었던 건 '지금껏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었다.

지금껏 나는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었다. 가정, 유치원, 학교, 학원, 동아리 등등. 한 달이나 반 년 남짓 속해 있던 곳도 있었지만, 대개는 몇 년 동안이나 그 안에 몸담고 있었다. 어딘가에 속한다는 건, 내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 역할,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착하고 예의바른 딸이기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착실하게 하는 모범생이기도, 앞장서서 길을 찾길 좋아하는 배낭 멘 여행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나는 그 언제라도 '나'인 적이 있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동안의 나는 참 부지런해서 이것저것-사람들이 대개 경험하기 힘든 일들까지도-해봤지만, 그건 단지 내가 어딘가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저 열심히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은 오로지 주변 환경에 의해 얻어지는 것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소속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건 아닐까? 내게 주어진 것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나는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했던 일들이 내가 '나'로 성장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그래서 이제 막 '성인'이 된 나는, 다 합쳐 네 번의 학교를 거쳤던 나는, 과연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가 되었나?

어딘가에 속해있다는 게 나의 성장에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부에서 요구하던 것들, 보다 우선적이라며 강요받았던 것들에 언제부턴가 나는 조금씩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이제는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나의 십대를 보내며 다짐했다.

인생 최초로 소속이 없어진 나는, 예상대로 정처 없이 방황했다. 여전히 나는 몸만 떨어져 사는 캥거루족이었고, 내년부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터라 당장 급한 건 자립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런 차에 아는 분의 추천으로 알게 된 곳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였고, 마침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평소 커피에 관심 있던 친구들과 바리스타인턴십에 지원했다. 그게 3월 초 즈음이었으니, 소속 없는 인간으로 살기로 한 뒤로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었다.

재작년 여름에 베트남을 여행하던 중에 '꺼우뎃'이라는 아라비카 공정무역 커피를 생산하는 마을에서 며칠 동안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다. 어린 묘목을 옮겨 심고 커피체리를 수확하고 열매를 씻고 건조해 '결점두'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면서 커피의 일생을 톺아봤던 경험, 막 볶아낸 원두를 그라인더에 갈았을 때 나는 구수한 향기와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추출한 쓰고 깊은 에스프레소의 맛에 반해버린 경험, 커피를 가꾸는 마을 어른들과 삼삼오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손 흔들며 인사했던 경험이 커피를 보며 문득 문득 떠올랐다. 인턴십에서 배웠던 것은 커피머신의 명칭과 작동법, 우유를 스팀하는 법, 여러 가지 음료를 제조하는 법, 그 외 서비스나 노동 교육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어서 이후 카페에서 실습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내가 얻어가는 게 단지 그 뿐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인턴십이 끝난 지금 돌아보니 그렇다.

내가 잠시 잊고 살았던, 다른 세계에서 나와 관계 맺었던 이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 그곳으로 건너가는 날들이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삼성역에 내리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에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반을 같이 듣기 시작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심지어 수강료에 시험료도 들 텐데-마음이 이끌면 한다는 나와 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론이 포함된 문제집을 공부하면서 커피종의 분류나 생산지의 차이, 향미 평가 등을 알고 나니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어떤 커피가 이런 향과 맛이 강하구나, 어떤 방식으로 제조되는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었던 게 좋았다. 인턴십이 끝나고 연속으로 듣는 강의라 그날만은 여섯 시간 동안 커피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참 체력적으로 부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시험에 카푸치노를 만들어야 해서 우유스티밍을 엄청 연습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스팀우유 상태는 괜찮으나 하트모양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카페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와중에 라떼아트 반을 또 신청했다. 우유스티밍하는 요령을 좀 더 익히고, 크레마를 안정시켜 원하는 모양으로 거품을 올리는 연습을 받은 재미로 받은 오기로 하다 보니 마지막엔 로제타(나뭇잎 모양)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오월 말이 되었고 유월 첫째 날에 나는 바리스타 2급 실기시험을 보았다.(전에 한 번 보긴 했는데 스팀에서 망하는 바람에 재시험을 본 것이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잘 했으니 합격일 것 같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 올해 반이 지나가고 있다. 처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여전할까? '자유롭게 부유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으레 나를 소개하곤 하는데, 내가 상상하던 모습과 나의 발자취는 얼마나 닮아있을까. 아마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남들의 눈에는 '대학 (아직) 안 간 스무 살 여자에'일 뿐일 테니, 떠도는 내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이들로부터 오지랖 짝 짝 엮은 걱정, 때로는 순수하고 악의 없는 칭찬에 치이고 또 치일 것이다. 그 무수한 상황 속 나는 더 단단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몸과 마음이 헤치고 또 다치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또 하나의 피난처이자 쉴 곳이 되리라 생각한다. 최근까지도 뭔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싸고도는 것 같고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걸 나의 어린 오만한 마음이었던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 가지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언제든지 찾아가도 나를 반겨주고 온 힘을 다해 도움을 주려는 이들이 있다는 믿음이 내가 한 발 더 나아가고 혼자 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걸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며 느낀다.

큰 힘을 얻어간다. 얻어간 에너지로 또 다른 작당을 모의해봐야겠다. 올해의 반이나 지난 것 같지만, 아직 반밖에 안 지난 것일 수 있고, 사실 반에 반도 안 지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스무 살이고, 우리가 발붙인 이 시대는 백세시대라고 하니까.

오로지 '나'가 되어 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생각하다, 문득 너도 곧 '나'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다른다. '모든 것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교리와, '모든 것이 <나>'라는 김현아 작가의 말이 머릿속에 겹쳐지다 흩어지길 반복하며 맴돌고 있었다.

이방인의 도시에서, 2018.06.04.

창업을 위해 꿈을 키우다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6기 수료

방준영



저는 바리스타인턴십 16기 때 교육을 받았던 방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요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리스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커지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바리스 인턴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드림카페 인턴십 16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커피를 음미하는 법과 만들고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 쓰는 법도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인턴십에서 커피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교육, 비즈니스 매너교육 등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함께 받다 보니 이력서도 쓰게 되었고, 여러 음료를 제조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태어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드림센터 4층 드림카페에서 정식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카페를 창업과 경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턴십 교육 때는 그래도 편하게 배워서 그런지 괜찮았지만 아르바이트 할 때는 할 일이 많아지고 처음에는 다른 알바생 분들과 같이 하게 되어 안 맞고 힘들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외부 카페는 더 힘들고 어렵지만 드림카페는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그런지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는 더 큰 사회로 나아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인턴십 과정과 늘 도와주신 담당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턴십 과정 속 자신감을 갖다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6기 수료

조희진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바리스타 인턴십 A조 조장 조희진입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실시한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평소 커피의 관심이 많아서 카페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교회에서 청소를 하다가 저의 소식을 듣고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드림센터 선생님이 카페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16기는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있어 아직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좋은 계기가 될 거 같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 교육을 8월까지 받고 자격증 수업도 듣고 다른 동기들보다 1개월 먼저 실습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계기로 지금 드림카페에서 5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8월에 교육이 끝난 뒤부터는 저희 16기 동기들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척 열심히 집중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7기 후배들이 내려와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단계라서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배로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카페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의 대표로 자리할 수 있어서 기뻐고,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인턴십 과정을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배움의 창을 열며 성장해 나간다



우와! 바리스타인턴십을 해볼까 고민하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수기를 쓰고자 하고 있으니 기분이 참으로 묘하네요. 앗, 저는 바리스타인턴십 17기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료한 18살 김효신이라고 합니다.

약간 자랑입니다. 하핫. 그럼 제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바리스타인턴십을 하게 되기 전까지 커피의 '커피'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커피를 많이 좋아하셔서 저도 약간의 호기심이 있는 정도였고 언젠가 한 번쯤 배워보면 좋겠다는 정도의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퇴하고 나서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던 중, 알바 인턴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바리스타인턴십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처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바리스타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인턴십을 신청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그 설렘은 배움의 설렘으로 이어졌습니다.

곧 저도 바리스타 인턴십의 학생이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도 해보고, 직접 내린 커피를 먹어보기도 하고, 서로가 만든 것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커피와 관련된 기계와 기구를 쓰고 다루는 법을 배우고,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레시피를 배우고, 커피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등등 수업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배움의 창을 열어갔습니다.

그렇게 커피와 친해져가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일인데, 저희들을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 내내 알차게 다정하게 수업해주셔서 더 행복했고,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간 친구들 역시도 열정적이고 밝은 아이들이 많아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곳에 물론 커피를 배우러, 바리스타가 되려 온 것도 맞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까지 해서 수업에 나오는 것이 더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긴 시간이기도 했던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얻어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에 보이는 바리스타로서의 실력은 당연히 향상된 것은 물론이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에도 인턴십이 크게 기여해주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던 역경들,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는 스팀, 시간 내에 만들지 못하는 음료 등.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느낀 뿌듯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자기성장감은 실습 마지막 때 격하게 느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고요? 괜찮아요. 지금 말할 테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때야말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피부로 와닿고 제 능력이 가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바리스타가 되려면 실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숙한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저 스스로 떨지 않고 손님에게 나날 음료를 만들고 손님 응대를 했을 때 정말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자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이제 경우 바리스타로서의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도 이 용기 있게 내딛은 첫걸음에 큰 환호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커피를 배우고 싶고, 제 꿈은 바리스타가 아니지만 바리스타라는 단어가 김효신이라는 이름 석 자에 붙여놔도 어색하지 않고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분들이 저처럼 커피를 행복하게 배우고 커피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스타 인턴십!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7기 수료

남송이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인턴십 17기 남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바리스타인턴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바리스타 인턴십은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2개월 동안은 바리스타교육을 받습니다.

바리스타실에서 머신 명칭부터 차근히 알려주시며, 담당 선생님께서 레시피를 알려주시며 커피를 만듭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에 종종 서비스교육이나 매너교육 등을 받습니다. 1개월 동안은 4층에 있는 드림카페에서 실습을 합니다.

바리스타인턴십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바리스타인턴십에 왜 신청했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퇴한 시점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퇴한 지 2달밖에 안되었을 때, 저는 검정고시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일상생활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도 즐거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사이트를 보다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하는 바리스타인턴십을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전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기회가 제 주변에 없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스타인턴십 모집공고를 보고 '이건 정말 해야겠다. 이번이 아니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면접을 본 다음에 드디어 바리스타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그라인더 머신의 명칭과 에스프레소 머신의 명칭을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추출하는 기구(프렌치프레스 등등)를 이용하여 담당 선생님께서 이 기구로도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기구를 알아서 좋았고 그 기구를 통하여 추출하는 과정을 보며 신기하다 느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인턴십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과 처음에는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제가 바리스타인턴십을 하게 되어 커피를 잘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제 실력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통해 느낀 경험은 더욱 소중하게 간직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 경험을 하게 되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 중 하나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롭고 풍요로운 경험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77기 수료
박수진



“수진아, 나 이거 하려고! 너도 같이 할래?”

남자친구가 내민 핸드폰 화면 속에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인턴십 홍보 포스터가 있었다. 갑자기 ‘바리스타?’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20살이 되던 해 작성했던 버킷리스트가 생각났다. 원체 달달한 걸 좋아하는 입맛이라 커피의 쓴맛을 싫어하면서도 커피의 향은 좋아해서 적어뒀던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이번 기회를 통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바리스타인턴십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생의 장점 중 하나는 시간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을 비우기 위해 시간표를 이리저리 조정하며 처음에는 이렇게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고민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총 10회차 정도, 두 달 동안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며 초반의 의심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드립커피가 커피머신에서 내리는 커피보다 더 비싸다는 것 정도밖에 몰랐던 내가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직접 내리고 원두의 종류를 짐작하고, 커피의 감칠맛을 안다. 학문에서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별개로 이러한 취미생활을 깊게 파고들며 즐기는 것 또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바리스타인턴십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만 만나 불편일률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부터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인턴십 수업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신경써주시는 담당자님의 꼼꼼함,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과도 편하게 얘기하고 금세 친해지는 10대 소녀들의 밝은 미소, 다양한 진로를 꿈꾸며 자신의 길을 써나가는 아이들 등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두 달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11월에는 센터 4층에 위치한 드림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선반의 먼지와 냉장고 내부를 닦는 일부터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는 등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서 남은 컵을 정리하는 설거지까지. 커피 향에 둘러싸여 일하는, 우아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카페 일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모여 하나의 카페를 굴러가게 하고 장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기도 했다.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친절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음료가 조금 늦게 나오거나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불평했지만,

이제는 아르바이트생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애기를 꺼낸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릴 때 고생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경험해보라고 하는 걸까.

인턴십이 끝나고도 바리스타 경험을 지속하기 위해 11월 10일에 바리스타 2급 자격증 필기 시험을 쳤고, 합격했다.

실기 시험도 잘 마무리해서 바리스타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커피잔 속에 의미를 담다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7기 수료

배상원



바리스타인턴십을 하기 전까지 나는 아르바이트나 인턴은 회사에 채용되지도, 그렇다고 채용되지 않은 상황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프로그램 담당선생님인 강정민 선생님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고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위기청소년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걱정이 무색하게 이번 17기에 지원한 친구들은 전부 밝고, 맑은 멋진 친구들이었다. 그런 친구들이 더욱 열의를 가지고 커피에 대해서 배우는데다가, 강정민 선생님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더해져서 이번 17기는 단지 드림센터라는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자 소속 집단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턴십 중간중간에 요리 실습이 있었는데, 끼니를 잘 챙기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강정민 선생님의 마음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다. 청소년 교육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담아 진짜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드림카페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처음 출근했을 때는 굉장히 떨렸고 두렵기까지 했다. 이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리 손재주나 일머리가 좋지 않아 가끔 실수도 하고 아직 다른 선배들만큼 음료를 잘 조제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는 딸기 맛이 나지 않는 딸기스무디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드림카페에 가는 것이 늘 즐겁다. (음, 물론 출퇴근 시간의 2호선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빼고.) 이것은 드림카페에 다들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즐겁게 일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턴십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혼자서 음료를 제조하고 있었고 개중에는 맛있다고 칭찬하는 손님들도 가끔 생겼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바리스타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커피잔에 하나의 의미를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임을 안다. 바리스타인턴십을 통해 커피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단순히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고 카페 알바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꿈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커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민하게 하는 곳이 드림카페인 것 같다. 바리스타인턴십이 내게 남긴 선물은 이 깨달음뿐만이 아닌데, 커피를 즐기고 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리스타인턴십이 아니었다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에 도전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에 홈카페를 만들기 위해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과 용품들을 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 서울시청소년드림센터와 천주교살레시오회 그리고 서울시에 감사한다.

자존감을 높여준 값진 경험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7기 수료

홍예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바리스타인턴십 17기 홍예은입니다. 저는 약 3년 동안 필리핀 국제학교에서 유학을 하다가 제게 더 맞는 길을 찾기 위해 귀국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현재 유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는 바리스타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검정고시를 독학으로 준비했던 케이스라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로운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셋째, 평소에 커피와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디에서나 알바를 구할 때 경험한 적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는 경향이 더 크고, 특히 저처럼 외국에 나가서 살 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제일 중요한 이유인 인생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서 바리스타인턴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며 만난 학생들이 다 활발해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 모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그 덕분에 커피에 대해 같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도 같이 높아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자존감이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것에 도전 할 때에도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 바리스타인턴십

2018년 바리스타인턴십 17기 수료
황지한



안녕하세요. 17기 바리스타인턴십을 지원하여 이번에 수료한 황지한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던 동기는 평소에 커피와 바리스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드림센터의 활동자립팀에서 바리스타인턴십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커피에 대해서 깊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커피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해보고,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과 그라인더 조작법을 익혀 다양한 커피 메뉴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참여하면서 평소에 생각만 했던 것을 직접 배움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을 하며 많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외부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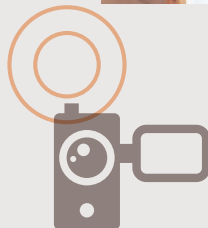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바리스타인턴십을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인턴십 활동사진





03

쿠키인턴십 청소년 수기

7기

8기

9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갖다



2018년 쿠키인턴십 7기 수료

김연서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7기 김연서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지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쿠키인턴십에 지원했는데, 지금은 쿠키인턴십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을 덜 주거나 늦게 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한테 그런 일들이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하는 인턴십은 그런 일들이 없어 그게 인턴십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받고 실습을 끝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동안 번 돈으로 혼자 일본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쓰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던 교육 때와는 달리 시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생겨 알바를 끝낼 때쯤이면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준 고마운 곳입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참여하게 될 친구들도 변화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학교에서 배우다



2018년 쿠키인턴십 7기 수료

김세윤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7기를 수료한 김세윤입니다. 저는 18살이며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보려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쿠키인턴십을 알게 되었고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집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었던 적도 있지만 덕분에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인턴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과제빵이나 베이킹 쪽에는 완전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까봐 걱정했었지만 친절하게 제조과정을 잘 알려주셔서 생각보다 실수도 많이 안하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참여하기 전의 저는 게으르고 귀찮아하는 일도 많고 소극적이었다면 인턴십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적극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턴십 활동을 8개월 동안 꽤 오랜 시간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같이 일했던 친구와도 많이 친해졌고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반죽을 오븐에 넣었는데 깜박하고 타이머 시간을 설정하지 않아서 반죽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까먹지 않고 타이머 설정을 잘했습니다.

저는 드림센터와 쿠키인턴십이 학교를 다니지 않던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친구도 사귄 수 있는 또 하나의 학교가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쿠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직업교육에서도 배운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턴십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망설여지고 걱정이 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인턴십에 신청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고 그만큼 선생님들께서도 친절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꼭 센터에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꾸 준 인턴십



2018년 쿠키인턴십 8기 수료

김지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토목건축과 3학년 김지훈입니다. 저는 쿠키인턴십 8기를 수료했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시작한 이유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개별학습실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저를 가르쳐주시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차피 집에서 할 것이 없으면 해볼래?’라고 물으셔서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참여했던 교육 중 경제교육에서 통장 관리하는 방법과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꿀팁’들을 알려주셨고, 면접을 볼 때 자세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취업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요리수업 때였습니다. 요리수업 선생님이 알려주는 음식 레시피대로 다 같이 만들고 먹었을 때 즐겁고 좋습니다. 또한 쿠키수업 중 스콘이랑 머핀을 만들 때 뭔가 팔이 아프고 운동하는 것 같은 점이 힘들기도 했지만 근육을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항상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게 돈 버는 재미와 신박한 경험을 주는 새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 제 모습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말도 꺼내고 다가가갈 수 있게 되어 제 모습에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저에게 드림센터와 쿠키인턴십은 밝은 성격으로 바뀌주고 쿠키 만드는 방법도 알려준 인생의 하나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발전해 가며 느끼는 뿌듯함



2018년 쿠키인턴십 9기 수료

김기연



안녕하세요. 쿠키인턴십 9기 김기연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 아르바이트 관련 사이트 등을 둘러보다 드림센터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흥미를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과제빵을 좋아해 자주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작한 쿠키가 직접 판매 된다고 하여 인턴십에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스스로 피드백 단계를 거쳐보기도 하면서 '전보다 나은 결과물을 만들자'하는 마음에 또 노력하고 만족하게 되었을 때 받는 뿌듯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평소생활대로라면 아마 느낄 일이 별로 없을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교육을 받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인턴십을 하며 새로운 인연도 알게 되어 더 즐겁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림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과정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분들도 청소년을 위해 열려 있는 드림센터에서 새로운 흥미나 취미, 인연을 쌓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 계단의 한걸음을 오르다



2018년 쿠키인턴십 9기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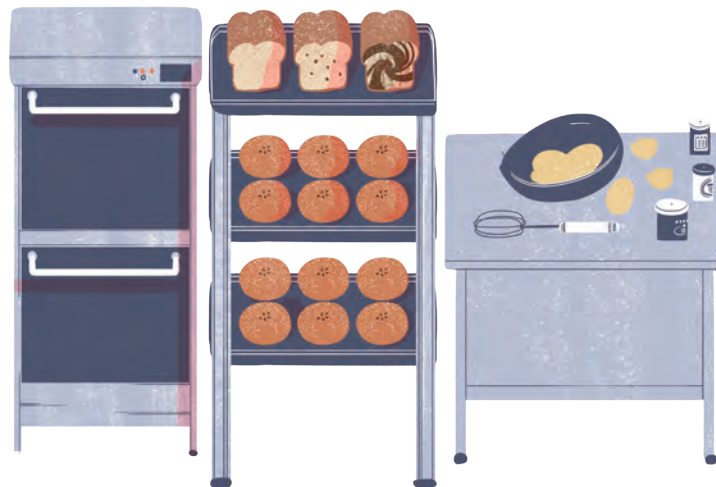
이제우



저는 17살 쿠키인턴십을 했던 이제우입니다. 계기는 딱히 없고 제가 돈을 벌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쿠키인턴십이란 저의 인생 계단의 한걸음을 오르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경험



2018년 쿠키인턴십 9기 수료

박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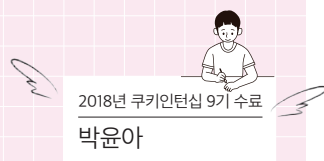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인턴십 9기를 수료한 박서진입니다. 쉬는 동안 짧게 할 수 있을 만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우연히 바리스타인턴십과 쿠키인턴십을 발견하게 되었고, 재밌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아몬드 쿠키를 처음 만들었을 때, 0.5cm로 해야 했는데 1cm로 만들어 버려 엄청나게 당황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덕분에 그때 실수를 발판 삼아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베이킹이 아예 없었는데, 쿠키인턴십 덕분에 많은 레시피를 배우고 써먹을 수 있어 좋았지만, 집이 멀어 오가고 하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늘 용돈만 받아왔는데 직접 일한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하기 전, 늘 집에서만 지냈었는데 인턴십 덕분에 밖에도 자주 나오게 되고 또래 친구도 사귀어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와 쿠키인턴십은 '학교'같은 존재였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또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학교 같은 곳.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분들도 소중한 추억, 뜻 깊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속에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우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키인턴십 9기 22세 박윤아입니다. 제가 쿠키인턴십을 시작한 계기는 우연히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쿠키 만들기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바통 오 쇼콜라'를 만들 때 레시피를 잘못 보아서 모양과 맛이 이상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레시피를 꼼꼼히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쿠키인턴십을 하는 동안 몇 번 교육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면접교육이 가장 인상이 남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어린 동생과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동생과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한 직접 레시피대로 쿠키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지인에게 포장해서 주면 대부분 사람은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점도 좋았습니다. 반면 실습 때 계량을 맞게 했어도 모양과 오븐 사용 때문에 카페에 많이 팔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쿠키인턴십은 쿠키를 배우면서 돈도 버는 일거양득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번 인턴십을 통해 대학교 전공 서적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먼저 다가서지 않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이번 쿠키인턴십을 통해서 동생들과 같이 쿠키를 만들고 마무리를 하며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웠고 쿠키를 만들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쿠키 선생님께 질문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저의 따분한 일상생활을 활동적인 하루로 바꾸어 주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집 이렇게 반복적인 하루로 살았는데 이번 쿠키인턴십을 하면서 조금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저에게 인턴십이란 '새로운 경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싫어하는 저에게 많은 경험과 대인관계 등 많은 것을 알려주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오븐이 있으면 쿠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게 해주는 도우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쿠키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저처럼 새로운 것을 하기 꺼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선 고민하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하므로 협동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 본인이 만든 완성된 쿠키를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쿠키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지인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습니다. (지인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완전히 친절하시고 자상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하시면 기분이 나아지고 조금이나마 고민이 덜어집니다! 쿠키인턴십 10기 여러분 이번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심 키우기



2018년 쿠키인턴십 9기 수료

손예진



저는 쿠키인턴십 9기 손예진입니다. 저는 대안학교 '성장학교별'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쿠키인턴십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의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경제교육이 나중에 돈 벌 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던 점입니다. 인턴십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경제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턴십 전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의존적인 모습이 없어졌습니다.(의사표현 포함)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성장입니다. 쿠키인턴십은 독립심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드림센터에 오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원하면 인턴십을 신청하세요.



배움의 놀이터



2018년 쿠키인턴십 8, 9기 수료

홍성민



저는 쿠키인턴십 8기와 9기를 수강한 홍성민입니다. 인턴십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전에도 쿠키인턴십을 했었는데 조금 더 기술을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쿠키를 만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쿠키특강 시간에 플로랑탱을 만든 것입니다. 보슈드 샤브레 반죽 짜는 것이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인턴십을 하며 내 용돈을 스스로 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행동이 느렸는데 하면서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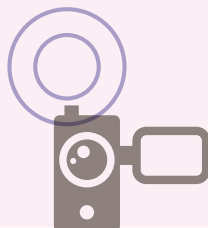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친구들을 알게 되고 쿠키인턴십이랑 제과제빵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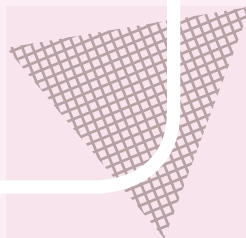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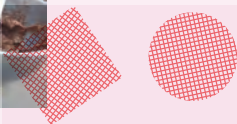
앞으로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드림센터를 소개하자면, 여러 가지 인턴십이 있고 놀이터라는 곳에서 포켓볼, 탁구, PC, 노래방 등 여러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쿠키인턴십 활동사진





04

놀이러인턴십 청소년 수기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준 곳

놀이터인턴십
강정원



저는 광장중학교에 다니는 16살 강정원이라고 합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소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제게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해보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권유를 받고 한다고 했었고 현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안에 있는 드림놀이터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곳 놀이터인턴십의 장점은 놀거리가 많고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는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고 엄청 소심한 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인턴십을 하면서 주변사람들과의 말도 트고 낮가림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저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새로운 삶과 희망을 준 고마운 곳입니다.

저에게 놀이터인턴십이란 낮가림은 것도 덜해지고 말도 트게 해주고 성격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곳입니다.

드림센터 이용자 분들 이벤트 많이 하니깐 부담 없이 많이 오시면 좋겠고, 인턴십을 하게 될 분들은 이용자 분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경험을 천천히
쌓아 나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제가 놀이터 인턴십에 들어 온 계기는 꿈드림에서 '청소년 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포스터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이터 인턴십에 들어와서 한 일은 컴퓨터 책상 닦기, 키보드 정리, 오락실 책상 닦기, 보드게임 관리, 당구 물품 관리, 노래방 청소 등 단순한 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하지 않던 제가 드림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집안일을 돕게 되면서 조금씩 집안일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놀이터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인턴십 회의도 참가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도 있고 대화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란,

꿈과 희망을 키워 준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인턴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인턴십을 신청해 천천히 사회 경험을 쌓아 나가봐요! :)

마음의 스위치가 되어준 곳

놀이터인턴십
임보영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고3이에요.

놀이터 인턴십을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그게 표현이다 될지 모르겠네요. 놀이터 인턴십, 드림센터를 오기 전 저는 1년동안 학교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여러 상처들과 계속 되고 있는 생활들을 그 1년에 담기는 부족했지만 누군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돼서 그런지 고2때 계속 추천해 주시던 이 곳을 계속 겁내다가 오게 되었어요.

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게. 툭 튀어나와 뽀족하지 않게 잘 다듬어져 스며들 수 있을까? 두렵고 낯설었어요. 누구든 처음은 낯설고 두렵지만 그래도 그 처음을 이기고 하루에 한 번 웃는 날이 생기니 그 다음주에는 두 번 웃고 세 번 웃을 수 있었어요

나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흉내를 내서 손님들과 소통하고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귀하고 감사했지만 활동자립팀 선생님들과 만나는 것도 소통하고 대화 하는 모든 시간이 좋았어요. 내가 선생님들의 성함을 알게 되고 선생님들이 보영아, 라고 불러 주셨던 그 시간들 덕에 계속 이 곳에 남아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깊었던 우울들에서 상처난 마음에서 저를 포기하거나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많은 시간을 일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림센터 놀이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드림센터에 스위치가 있는데 제겐 마음의 스위치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했고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머물다 가고 싶은 곳이에요. 처음이 두려워도 괜찮고 시작이 겁이 나도 괜찮아요. 원래 처음과 시작은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은 해야지, 겁나기만 했던 것의 알맹이라던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일하면서 제 자신을 더 알고 싶어졌고 제 자신에게 기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깐 겁이 나는 사람이라면 이 곳에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사회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이니깐요!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

놀이터인턴십
정재윤



친구가 놀이터인턴십을 하고 있길래 소개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바 경험이 꽤 많고 종류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놀이터인턴십만큼 편하고 좋은 알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잘해주시고 착하고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할 예정이고 화재를 만든다고 해서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정도로 재미있는 알바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진짜 못하게 되는 게 아니면 계속 쪽 하고 싶은 정도로 재밌습니다.

좋아요♡



할 수 있어! 화이팅!

활동자립팀 놀이터인턴십

한효정



저는 제가 다니고 있던 꿈지락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놀이터 인턴십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취업준비를 앞두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가거나, 하고 싶은 분야도 없었고, 그렇다고 눈이 뿔 정도로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는 게 시간이었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알바 경험이 있지만 홀로 서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에 더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격증을 따 놓은 것도 아니고,,, 검정고시 전형 졸업생이라 더 무언가를 하기에는 애매한 상태였어요. 집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부는 계속 하고 싶고, 돈은 필요하고... 어느 한 쪽은 포기해야 했죠. 마침 그때 소개받은 놀이터 인턴십은 저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소개를 받은 후 그 날 바로 전화를 드렸고 다음 날 면접을 봐서 놀이터 인턴십을 하게 되었어요.

인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시간 관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꿈지락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시간이 되면 인턴십에 오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많이 길지 않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놀이터 안에 손님이 없을 때에는 개인공부를 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요.(선생님께서 허락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점이었어요)

힘들었던 점은 좋은 분들이 많아서 딱히 없었어요, 선생님들과 가끔 오시는 자원봉사자 어머님들도 모두 고생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신 다거나.. 너무 잘해주셔서 근무하는 날마다 그분들에게 좋은 모습만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더 즐겁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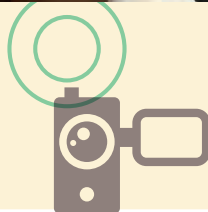
앞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는 거야! 누구나 처음은 있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경험을 쌓으려고 여기 온건데! 걱정하지 말고 오기나 해!

할 수 있어! 화이팅



놀이러인턴십 활동사진





04

지역연계인턴십 청소년 수기



같은 입장의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지역연계인턴십
김현지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자퇴생 김현지입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친구가 예전에 참여했던 인턴십이 생각나 친구에게 정보를 물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진행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중에서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제 소비 생활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건강한 밥상을 차려 맛있게 한 끼를 해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마지막에 만들어먹었던 냉파스타가 너무 기억에 남아 나중에 해먹어 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딱히 힘든 점은 없었고 다들 너무 잘해 주셔서 좋았던 기억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턴십지역연계를 받아 지금 '커피에 반하다'라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카페 일은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서툴지만 열심히 일이 몸에 익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저에게 아르바이트란 굉장히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부와 함께 병행하기 위해선 아르바이트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 저에게 지역연계인턴십은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지역연계인턴십에 참여하고 싶는데 망설이고 있는 저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은 프로그램이었으므로 다른 친구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계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배움과 소소한 행복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서나윤입니다.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는 고1(17세)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돈을 받으면 그때그때 바로 써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저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선생님이 자취할 때 겪는 불편함을 말해주실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나도 성인이 되면 겪는 일,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공감이 되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던 인턴십 교육은 신용에 대해 배운 것이었고 지금도 통장을 나눠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교육을 듣고 나에게 맞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좋았습니다.

매일 11시에 늦게 일어나다가 7시 30분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더불어 사업장의 셰프님이 랜덤으로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생각하며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까' 하고 소소한 행복에 하루하루 기다려집니다.

저는 인턴십을 하면서 부지런해지고 활발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하게 될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끈기 있게 도전하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행복을 찾기위해 배우다

지역연계인턴십
서호준



내가 동갑내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였다면 수능을 치러야 했던, 열아홉 살의 한 해는 내게 특별했다. 그 시작은 올해 초, 내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휴학을 통지하는 것부터였다. 나는 학교 사람들에게 휴학을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야 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그해 6월에 있을 FIFA 월드컵을 보러 러시아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휴학을 요청했고 조금 얼떨떨하지만 반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올해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켜고 일자리를 찾으려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허사였다. 내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을 찾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보였다. 추측컨대,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솔직하게 서술한 프로필과, 19살이라는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내 조건을 솔직하게 밝힌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에서 작은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을 통해 조금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아무런 문자나 연락도 오지 않을 때마다 나는 속이 상했다. 특히나 학교까지 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은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니 정말로 괴롭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한 달째 일을 찾지 못한 나는 드림센터를 찾아갔다.

나는 학교 동기를 통해 지역연계인턴십을 알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됐다. 물론 그 친구는 1회만 나오고 말도 없이 그만뒀다. 나 또한 중간에 나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끝까지 마쳐보기로 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만 그때 했던 활동들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계약서 쓰는 법, 가계부 쓰는 법, 폭행이나 추행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몇 차례의 강의들과 요리시간들. 직업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덕분에 나와 십수 명의 청소년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장에 일을 나가기 전 몇 주 동안 준비운동을 잘 끝마칠 수 있었다.

내가 한 지역연계인턴십의 특징이라면 바로 돈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였다. 말 그대로 '인턴십'이다. 선생님들은 우리로 하여금 매번 출퇴근 카드를 찍게 하였고, 비록 적지만 소중한 첫 주급을 나의 명의로 된 통장에 받을 수 있었다. 계좌를 너무 늦게 만든 몇몇 사람들은 주급을 제때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면 안되냐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원칙적으로 행동하신 선생님에게 나는 조금 감동받았다.

내가 가장 흥미 있게 했던 활동은 요리다. 사실은 나도 놀랐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요리가 즐거운 적이 없었는데 센터에서 할 때는 가장 열심히 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미래에 독립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조금 상상했고, 생각보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쉬웠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센터를 다니면서 내가 가장 어색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선생님들의 태도다. 마치 유치원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가도 센터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고, 강의나 교육을 하러 오신 강사분들은 어떨 때마다 못 당하겠다는 표정과 말투가 드러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를

곤혹스럽게 했던 부분은 함께 하는 학생들에게 있었다. 강의 도중에 욕설 내뱉기, 활동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조별활동 중에 탄소리 하기 등등 몇몇 참가자들의 행동은 내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황당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누굴 탓하리. 이 또한 경험이다 생각하고 넘겼던 덕에 지금은 그들의 얼굴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정말 문제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서부터인 것 같다.

지역연계인턴십을 통해 내가 갖게 된 일자리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였다. 노동(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5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꽤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쉬웠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빵을 다 외우는 것이었다. 편의점과 다르게 빵집에 있는 모든 물품에는 바코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려면 손님이 가져온 빵을 보고 포스에서 그 빵의 이름을 찾아야만 한다.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몇 주 동안은 느릿느릿한 계산처리로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그러한 점이 참 아쉬웠다. 처음에 내가 답답하고 미숙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티를 내줬다면 나와 나의 계산대를 거쳐 갔던 손님들 모두에게 더 여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일부러 교육 중인 티를 많이 내기도 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고 단순하기도 하다. 바닥이 더러워지면 청소하면 되고, 손님이 안 올 때는 물건을 채우면 되고, 낮에는 포장하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끝나면 근무일지에 사인하고 집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나는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매번 똑같이 청소하고 물건 채우고 포장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기계가 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지, 손님들에게 조금 더 다른 일상을 안겨 줄지를 고민했다. 이런 나의 마음가짐 덕분에 3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는 조금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바로 외국인 손님들을 도와 준 것이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한 손님은 몇 시간 동안만 짐을 맡겨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고, 어떤 손님은 엽서를 쓰기 위해 펜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손님은 중국어를 쓰는 한 여성이었는데, 자기의 쇼핑백의 밀이 찢어져서 테이프를 좀 빌려 달라고 하더니 잘 안 되었는지 종이 쇼핑백을 새로 달라고 태연하게 내게 말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초코 케이크 중 어느 게 맛있느냐고 물어보고 사가기까지 했다. 황당한 것은 이 손님은 내가 중국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보통 내가 만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영어가 통하면 상당히 반가워하고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인지 이 손님이 가장 황당한 손님으로 기억에 남는다.

나는 3월 14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약 세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했다. 일을 하면서 황당한 일, 안타까운 일, 기쁜 일 등등 많은 에피소드들을 갖게 됐지만 역시 가장 큰 수확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큰돈을 얻은 나는 예정대로 러시아행 비행기 티켓을 샀고, 꿈에 그리던 월드컵 경기를 봤다.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은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않을 만큼, 정말 소중한 시간들 같이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한번 전하고 싶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독립된 어른이 어떻게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지 배웠다. 단언컨대 그것은,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조차 몰랐던 예전의 나를 떠올려 보면 분명한 배움이다. 처음 드림센터를 찾아갔을 때 나의 모습은, 인생의 큰 공부를 한다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때 나의 태도는 백번 반성해야 마땅하다. 덕분에 그 이후로 나는 아무리 작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 기울인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삶에 긍정적인 습관이 하나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또 다른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될 청소년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도 삶을 좋게 순환시켜주는 행복과 성취가 있길 바란다.

내게 드림센터는 안전이었다

지역연계인턴십
신혜연



저는 지역연계인턴십에 참여했던 청소년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나이 제한도 있고, 아무 경험도 없이 무턱대고 구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할 것 같아 인턴십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다 같이 요리해먹는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 과정을 들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사업장에 연계된 후 정식으로 시작된 아르바이트가 초반에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다 빵을 다 외워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실수도 잦았는데 혼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알려주는 부드러운 분위기 덕분에 주눅 들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하고 직접 돈을 벌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시도해보면서 소비의 결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다보니 좀 더 개방적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여러 경제적 시스템과 혜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퇴할 생각을 가지기 전에는 청소년드림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더 알아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센터가 확장되고 드림에서의 지원이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연계된 지역연계인턴십은 저에게 '안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혼자서 대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중간에서 조율해주고 신경써주면서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림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더 확장이 되어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를 느끼다

지역연계인턴십
심혜연



저는 지역연계인턴십을 한 심혜연입니다. 여행과 학원 등록을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이런 인턴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작했습니다.

인턴십에서는 여러 강의와 요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만족스러웠고, 특히 요리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수강자분들과 생각이 잘 맞아서 편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스스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체감이 잘 되는 것은 밥을 사먹지 않고 만들어 먹는 횟수가 늘어난 부분이었습니다. 또, 인턴십과 아르바이트 일정에 맞춰 생활하다보니 새벽 즈음이었던 취침 시간이 많이 당겨졌고 피곤함이나 무력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턴십에서 연계되어 일하는 사업장은 파리바게트 수석역점입니다. 알바 자체가 처음이라 업무적인 쪽은 어떤 점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바를 하며 반말을 쓰거나 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성찰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턴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자퇴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드림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말고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경제 수업에 든든함을 느끼다

지역연계인턴십
양채윤



저는 지역연계인턴십을 수료한 꿈이룸학교 양채윤입니다. 성인이 됨에 따라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고 사회생활을 맛보기 위해 인턴십을 신청했습니다. 겁이 많아 섣뎁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지 못한지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해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연계인턴십을 신청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제 수업이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수업에서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역할극을 해본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수업은, 노동법규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에 겁을 내었던 이유도 월급을 받지 못했었던가 하는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법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가야 할 기관,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상세히 전달받을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저는 신촌에 위치한 독립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계인턴십 담당 천지원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덕분에 잘 연결되었습니다. 현재 인턴십을 6개월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데, 당연 2018년에 있었던 일 중 손에 꼽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돈을 받던 때보다 생활이 여유롭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월급을 비롯해 다른 돈을 모두 모아 여행을 다녀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똑똑히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업장이 책방이기 때문에 서울의 작은 서점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듣고, 개인이 자비로 책을 출판하는 독립출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책방에 일하면서 독립출판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개개인의 이야기의 도구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독립출판을 통해 책을 출판하고 싶다는 꿈도 품게 되었습니다. 책방의 일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경제, 노동, 서비스 수업을 들어보며 제대로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장을 연결할 때는 직접 많이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육의 힘과 나의 자부심

지역연계인턴십

유현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2018년 4회차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구장 앞 GS25 직영 편의점에서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드림센터 건물 1층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턴십도 쉼터에서 홍보 포스트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일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수업을 마치고 요리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요리를 완성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리시간에 있던 일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 교육 중 도움이 된 교육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경제교육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막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교육을 듣고 돈을 어떻게

저축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경제이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교육들을 2주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다른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한달 넘게 교육을 들어야 하지만 기간이 짧지만 알찬 교육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근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1이라는 나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도 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올바른 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연차와 생리휴가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고, GS 리테일 제품을 직원 할인가로 살 수 있는 좋은 복지제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시즌일 때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서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줍니다. 동시간대 근무자가

2~3명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돈이 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의 용돈으로만 생활하던 저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쓰고 또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아껴 쓰면서 돈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인턴십을 하는 분들은 인턴십을 하면서 관두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다음 인턴십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드림센터 인턴십 대표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가 성장에 도움을 준 곳

지역연계인턴십

최정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최정윤입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마땅히 구해지는 아르바이트도 없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막막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지역연계인턴십 학생을 구인하고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청하고 보았는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프로그램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매주 직접 요리를 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잡다한 팁을 알려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 교육을 받을 때 손님을 대하는 예절, 돈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배웠는데 직접 사회생활을 겪어보지 않아 몰랐던 점들을 자세하게 알게 되어 여러 분야에 대해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흥미 없는 수업까지 들어야하는 게 제일 힘든 점이라면 힘든 점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더 자세히 들을 걸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턴십 교육을 수료하고 파리바게트 수서역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매니저님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친화력이 좋아서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매장도 넓고 파는 빵 종류도 굉장히 많아 쉬는 시간에 빵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번 돈이라 뿌듯한 마음이 함께 듭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으다 보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중에 홀로서기를 할 때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턴십 하기 전에 제 모습은 매일 늦은 저녁에 일어나 동이 트고 나서야 잠이 드는 불규칙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던 청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건강에 신경 쓰고 제 인생을 제 의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엿한 열아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엔 무작정 부모님에게만 의지하고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다가 이제는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저처럼 막막한 청소년들을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 같습니다. 지역연계인턴십 또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또래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인턴ships을 듣게 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 맞춰진 시간에 드림센터로 오고 무언가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이 빠가는 기분이 들어도 나중엔 다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니까 수업을 꼭꼭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연계인턴십 활동사진



경제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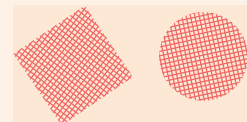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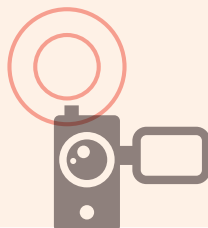
근로계약서작성



노동인권교육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독립서점 이후복스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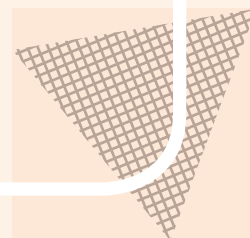
양채윤청소년(이후복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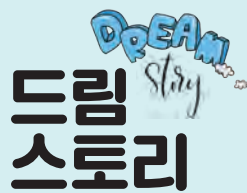


즐거운요리시간



지역연계(계약서작성)





청소년인 나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tel. 02-2051-8600 www.dreamcenter.or.kr